

# The Media Korea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5579-6569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제18회 아시안게임이 지난 2일 막을내렸다. 한국선수들의 열전과 한 인동포의 뜨거운 응원이 어우러졌던 감동의 시간들이었다

“인~도네시아 짜작짜~짜작” “스망앗(Semangat·열정) 인도네시아”

경기장마다 인도네시아 관중의 응원 소리가 요란하다. 박수는 귀에 익은 박자다. 한국 응원단이 2002 한일 월드컵 때부터 쳐온 그것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최국 인도네시아 국민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마치 우리나라의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연상시킨다.

무엇보다 성적이 좋다. 28일 오후 6시(한국시각) 현재 금메달 24개 등 70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 4위를 달리고 있다. 금메달 20개, 톱10 목표를 일찌감치 달성했고 자국의 역대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기록도 넘어섰다. 금메달 31개인 한국의 3위 자리마저 위협하는 형국이다. 배드민턴 등 몇몇 종목에 치우쳤던 메달이 역도, 태권도, 테니스, 사이클 등으로 확대되는 등 메달을 1개라도 따낸 종목이 21개에 이른다.

인도네시아는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톱10 안에 든 적이 없다. 금메달도 6개(1998년 방콕)가 최다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스포츠 강국이었다. 1962년 자카르타 대회 때 금메달 21개로 일본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은 당시 금메달 4개로 5위였다.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었지만 당시 금메달 수가 127개로 이번 대회(465개)의 4분의 1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

## 아시안게임, 인도네시아에 약 될까, 독 될까



### 역대 최다 금메달에 국민들 열광 저액 투자에 내심 ‘적자’ 걱정

하면 엄청난 수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회에서 31개의 금메달을 따내 역대 최다 금메달을 기록했다. 이는 1970년 아시안게임

을 유지했다가 경제 사정으로 타이에게 개최권을 반납했다. 이번 대회도 베트남이 유치했다가 포기하자 인도네시아가 넘겨받았다. 조코 위도도 정권은 아시안게임 유치를 계

기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4,700조루피아(363조7,800억원)를 투자해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교통 체증 해소가 큰 과제다. 25년간 자카르타에 거주한 한 교민은 “인도네시아는 토지 강제수용을 하지 않는다. 집을 피해 도로를 내다보니 길이 구불구불하다”며 “25년 전보다 차량은 10배 넘게 늘었는데 도로 확충은 거의 없다”고 했다.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 자본을 끌어들이지 하철(MRT) 공사도 시작했다. 어치구니없게도 아직 완공을 못 해 교통체증만 부채질하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만 30조 루피아(약 2조2,700억원)를 쏟아부은 정부는 내심 적자를 걱정하고 있다. 축제는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이 인도네시아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궁금하다.

## 부동산 헨슨, 수도권서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 업체 헨슨 인터내셔널(PT Hanson International Tbk)은 ‘그랜드 자카르타’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여 반딧 주와 서부 자바 주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 개발을 당초의 4,000헥타르에서 1만 5,000헥타르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

최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시를 연결하는 30킬로미터의

고속도로도 건설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중국의 거대 기업이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헨슨 인터내셔널 설립자 베니씨에 따르면, 세르봉-빠룽 뺨장-띠가락사-마자(Serpong-Parung Panjang-Tigaraksa-Maja) 지역에 걸쳐 유명 대학 10개교의 유치를 계획하는 등 교육과 오락 시설의 개발을 진행한다.

내년 주주 할당 증자 등으로 15조~20조 루피아를 조달할 예정이며 세르봉-마자(Serpong-Maja) 사이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수도권 중심부에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정비한다.

고속도로 건설은 국영 건설 위자야 까르야(WIKA)가 10%를 출자, 중국 기업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베니씨는 이 중국 기업에 대해



“ ‘포춘 글로벌 500(세계 500대 기업)’ 에 랭크하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헨슨 인터내셔널은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부동산 대기업 씨뿌뜨라 그룹과 협력하여 마자이, 빠룽 뺨장에서 총 4,000헥타르의 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19(己亥年)년을 준비하세요!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는 : 0858 9060 0962, 021 5579 6569 입니다

# ‘서민후보 vs 독재자 전 사위’ ... 인니 차기 대선구도 확정

## 조코위 대통령, 지난 대선 최대적수와 5년만에 재대결



▲10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9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조코 위도도-마루프 아민(왼쪽)과 프라보워 수비안토-산디아가 우노(오른쪽) (사진=자카르타 경제신문 /Aditya)

동남아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선이 서민 후보와 기독교 세력인 군 장성 출신 정치인의 재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10일 일간 폼빠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57·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후보 등록을 하고 재선 도전을 본격화한다. 부통령 후보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구 울레마 협의회(MUI)의 의장인 종교 지도자 마루프 아민(75)이 지명됐다. 이는 인구의 87.2%를 차지하는 무슬림 유권자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조코위 대통령은 “왜 마루프 아민을 지명했는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각각 민족주의자와 종교계를 대표해 서로를 보완해 준다”고 설명했다.

중부 자바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조코위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과 소통형 리더십으로 2014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일약 돌풍을 일

으켜 군부나 기성 정치권 출신이 아닌 첫 대통령이 됐다. 조코위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 들어선 현재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적들은 그의 오른팔이었던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중국계 기독교도라는 점 등을 들어 조코위 대통령에게 이슬람과는 거리가 먼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씌우려 노력해 왔다.

조코위 대통령과 맞서는 주자는 군 장성 출신 정치인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 당) 총재다.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했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그는 수하르토 정권 말기 군부세력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프라보워 총재는 보수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2014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시됐지만, 조코위 당시 투쟁민주당(PDI-P) 후보가 일으킨 돌풍에 밀려 석패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계의 ‘젊은 피’로 주목받는 산디아가 우노(49) 자카르타 부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골라 약점으로 꼽히는 젊은 유권자층을 공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민주당을 이끄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69)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프라보워 총재 진영에 합류하는 대신 아들 아구스 하리무프리 유도요노(41)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 했으나 막판에 불발됐다.

인도네시아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면 전국 득표율의 25%나 하위 의석의 20%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나 정당 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에 내년 4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은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워 총재의 양자 대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조코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

올해 3월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당선가능성은 60.6%로 프라보워 총재(29.0%)를 크게 웃돌았다. 현지 여론조사기관인 풀마크 인도네시아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이러한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겠다고 전했다.

## ‘자본유출 · 환율비상’ 인니, 소비재에 추가 관세 부과기로

통화가치 급락과 자본유출로 몸살을 앓는 인도네시아가 소비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5일 일간 폼빠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리 몰야니 인드라와띠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전날 각료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수입 억제 를 위해 500개 소비재 품목에 7.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더해 관련 자재 등을 대량으로 수입해야 하는 국영기업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들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드라와띠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경상수지 적자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2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국

내총생산(GDP)의 3%까지 확대돼 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자카르타 종합주가지수는 10일 6,077.17에서 14일 5,769.87로 5% 이상 급락했고,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14일 달러 당 1만4천630루피아에 거래돼 2015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15일 기준금리로 삼는 7일 물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5.25%에서 5.50%로 0.25%포인트 올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전문가 대다수가 최근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랐다는 이유로 동결을 예상했으나,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메릴린치, 노무라홀딩스 등은 인도네시아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이상 추가 인



▲8월 14일 스리 몰야니 인드라와띠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각료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신흥국 통화들의 약세 속에 지난 1일 달러 대비 가치가 1% 증발했으며,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루피아 가치 하락이 일부 터키 외환위기의 여파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은행의 발표 뒤 루피아는 달러당 1만4천585루

피아 근처로 가치가 올랐다.

인도네시아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 2년여간 기준금리를 7.50%에서 4.2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했다가 올해 5월 17일부터 인상에 나섰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 인상 여파로 자본유출과 함께 루피아의 가치가 급락한 데 따른 조치였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 재무부, 수입법인소득세 인상 검토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일, 무역 수지 개선을 목표로 수입법인세(PPh) 비율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끈판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리 재무장관은 “새로운 규정은 재무장관령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관계 부처와 중앙은행, 금융감독청(OJK)과 협의의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재무부 재정정책기구(BKF)의 수아하실 나자라 국장은

“PPh의 세율 인상은 소비재와 인프라 분야 자재 등에 적용된다”라고 말하며 “이밖에 소비재 수입세 인상이나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소비재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실파 부회장은 “투자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입액은 1,073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자본재 30%, 소비재 27% 각각 확대됐다. 무역 수지는 30억 8,800만 달러 적자였다.

## 인니 상공회의소, 수출 사업 수익금 본국송환... 루피아 안정화 정책 본격 추진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는 회원사들이 해외 수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루피아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콤포스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카딘은 14일 중앙은행의 페리 총재와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금융감독청(OJK) 등과 회의를 열었다. 로산 카딘 회장은 회의 후 “

루피아 환율 안정화를 위해 해외 수출을 통한 수익을 모두 인도네시아로 송환할 것”이라고 말하며 “송환 자금 중 40~50%는 루피아로 바꾸도록 요청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수출 사업에 따른 수익 중 인도네시아에 환류되고 있는 규모는 80~81%에 달한다. 그



러나 이 가운데 루피아로 환전되는 것은 15%에 불과하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루피아 환율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수입 억제 방안 등을 진행 중이다.

## 한·인니 정부 첫 ‘자동차 대화’ ... 한국 자동차 진출 독려

### 한-인도네시아 정부 첫 ‘자동차 대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첫 만남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제1차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산업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표적인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



▲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제1차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에서의 협력방안으로서 차관 보급 자동차 대화 채널을 신설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약 100만대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 제품이 97%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시장이고, 우리나라 점유율은 0.2%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대화에서 세계 6위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 자동차의 뛰어난 품질, 가격경쟁력, 기술력을 소개했다. 자동차 종류(4도어/5도어), 배기량(1천500cc 미만/이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소비세를 적용하는 인도네시아의 규정

은 4도어 1천600cc가 주종인 우리 업계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다양한 자동차 메이커가 있어야 건전한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우리 업계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를 정례화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기술력을 축적 중인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소중한 새싹

갓 피어난 새싹처럼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세찬 풍파 속에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푸른 새싹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멘토를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JC PT. JOO CONSULTANT

Office : Karawaci Office Park (Ruko Pinangsia) Block D37 Lippo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8 1618  
Email : joo\_consultant@hotmail.com/jooconsultant@hanmail.net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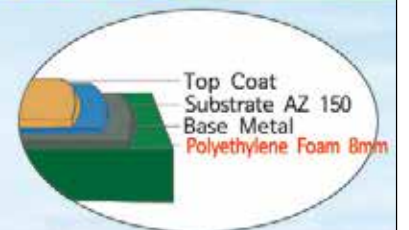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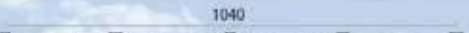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일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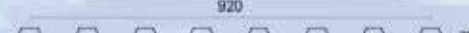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110mm Seaming Type (Roll on Site)



5. Genteng Metal (기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질판은 호주기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점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무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 한인청년회, 노동부와 외국인 고용 등 현안 논의



▲ 한인청년회 관계자와 노동부 고위 관리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는 한인들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인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 지난 7월 24일 현지 노동부 고위급 관리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한인청년회는 ‘한 걸음 앞으로’ (Maju Satu Langkah)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열린 노동부와의 간담회는 두번째 행사다.

이날 자카르타 노동부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우리 측에서 정제의 한인청년회장, 김영미 노무관 등, 현지 노동부에서는 인력배치·고용총국 담당 마를리 아쁠 하솔로안 차관, 외국인근로자통제국 로모스피아와띠 국장, 외국인근로자 허가 담당 위스누 뿌라모노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인청년회는 한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전달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열렸다.

마를리 차관은 “앞으로도 한인청년회와 지속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통해 현안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인청년회는 마를리 차관에게 명예 한인청년회원 인증패를 전달했다.

한인청년회에 따르면 이날 논의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주요 법규정은 아래와 같다.

1) 바르고 빠른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당국은 온라인 체계를 구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2) 외국인인력사용계획(RPTKA)은 온라인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비자발급 시 신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3) 사회문화비자(211A, 211B)는 근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새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조정청(BKPM)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임시체류허가(ITAS)를 진행하고, 별도의 외국인고용허가(IMTA)가 필요 없다. 업종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는다.

5) VITAS/ITAS 등 비자는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6일이 소요된다.

6)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규정과 관련해 기업이 인도네시아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당국이 개인의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7) 인턴제도(Magang)와 관련해 현지 노동부에 관련 규정은 없으며,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이 커리큘럼이나 인턴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지 인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노동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8) 업무와 관련하여 급여가 발생하는 즉시 근로자로 간주된다. 단, 숙식 등 거주에 필요한 사항은 제공할 수 있다.

9) 동일한 직종인데 2개 이상의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할 경우, 노동허가를 중복하여 받지 않아도 되는 업종(직군)은 전자상거래, 석유·가스, 교육(대학의 강사) 등이다.

위 법규정과 관련해 노동부 웹사이트(<http://tka-online.kemnaker.go.id>)에서 개방직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한인청년회 관계자는 이외에도 RPTKA, IMTA 및 기타 ITAS/VITAS 등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민감한 부분이 있어 자세히 기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두산인프라코어, 인니 국영 엔진업체와 LOI... 동남아 공략 가속



두산인프라코어는 23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이 나라의 국영 엔진 생산업체 BBI(PT Boma Bisma Indra), 딜러사 에퀴텍(Equitek)과 ‘디젤 엔진 생산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3자 간 협력의향서(LOI) 체결식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디젤 엔진 국산화’ 정책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LOI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는 부품 공급·판매·생산 등 전반에 걸쳐 인도네시아 엔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중 엔진 시장이 가장 큰 곳이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뛰어난 역량의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

며 탄탄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기존에 발전기용 엔진 판매가 주를 이루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차량용·산업용·선박용 등 다양한 엔진으로 판매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엔진 시장은 차량 및 산업용 수요를 바탕으로 2018년 4만5천 대에서 2025년 6만7천 대로 연평균 6%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2% 수준인 전 세계 엔진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유준호 두산인프라코어 엔진BG장(부사장)은 “지난해 베트남 차량용 엔진 시장 진출에 이어 이번에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돼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엔진 시장 공략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GOOD**  
interior + taste + service

**산정** SANJUNG  
REAL KOREAN BARBECUE

산정의 깊고 정갈한 맛, 정성스러운 서비스  
그리고 품위있는 분위기를 즐기십시오.

명품만두

전통 한식바베큐

Pork BBQ 7 Items!  
**Barbeque pork 20% Off**

**Karawaci**  
Jl. Boulevard Palem Raya No.2809 Taman Sari Uppa Karawaci  
(021) 547-3172-3. Hp: 08222-09-55547

**Cikarang**  
Jl. Majapahit, Desa Cibatu Kav.62, Uppa Cikarang  
(021) 2909-3000, (021)2909-3555 Hp: 0812-9037-7717

**Pantai Indah Kapuk**  
Ruko the Gallery Block 8 unit FC Jl.Pantai Indah Utara 2, Pantai Indah Kapuk  
(021) 3005-1650, (021)3005-1660 Hp: 0811-823-9000

## 신한 인도네시아은행, '인포뱅크 2018 최우수은행' 선정

수익성과 건전성 탁월한 성과 인정... '자산규모 10조 루피아 군 최우수은행' 선정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인도네시아 유력 금융 전문지 인포뱅크 매거진(Infobank Magazine)의 은행평가에서 '자산규모 10조 루피아 군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현지 CNB은행과 BME은행을 동시 인수 합병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했으며 영업을 시작한지 1년만에 자산 10

조5,000억 루피아를 달성했다. 인포뱅크 매거진은 대내외 어려운 금융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기준 당기순이익 948억 루피아로 전년동기 대비 182% 증가했다. NPL(부실채권) 비율은 0.8%에 불과해 건전성과 수익성 부문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점이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된 배경이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 일환으로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LRT(차세대 노면전차), 고속도로, 발전소 등 다양한 정부 주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근로자대출 등 리테일 금융 부문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모바일뱅킹 업그레이드, 현지 핀테크 업체와 협업 모델 개발 등 디지털 뱅킹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예정이다. 변상모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은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있는 현지 선두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중소기업이 많지만 모든 임직원이 함께 기회를 꾸준히 찾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인도네시아 리딩뱅크로 인정받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 물류산업, 두 자릿수 성장 지속 예상 전자상거래 수요와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 시설 투자의 결과

인도네시아의 물류산업은 전자상거래 수요와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투자의 결과로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Post & Parcel>은 인도네시아 물류협회(ALI)의 웹 사이트에 실린 기사를 인용하여 ALI의 잘디 회장이 "인도네시아 물류의 성장률은 10%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잘디 회장은 현 인도네시아 물류에 대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 5년간 비즈니스 성장을 기하 급수적으로 추진해 왔고, 많은 급행 물류회사가 새롭게 출범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에 물류 표준화가 거의 안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는 일이 매우 어



렵다. 인도네시아의 17,000개 섬 지형은 해외 이주자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ALI 웹사이트의 기사에서도 인도네시아 물류운송업협회(ALFI) 유끼 회장 역시 인도네시아 물류산업 성장률을 10%로 예상했다. 유끼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물류 부문

은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비해 물류비를 줄여야 하며, 인도네시아 물류업계의 모든 이해 관계자는 '산업 4.0'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브랜드 평가 1위 차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인구 4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나란히 브랜드 평가 '톱3'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업체 '캠페인 아시아퍼시픽'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인도네시아 100대 브랜드(Indonesia's top 100 brands for 2018)' 명단에서 두 업체는 각각 1위와 3위에 랭크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고, LG전자는 미국 애플을 제치고 지난해 4위에서 한 계단 올라섰다.

2위는 작년보다 4계단이나 상승한 일본 파나소닉이었고, 애플과 스위스 식품업체인 네슬레가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이어 구글, 소니, 나이키, 피자헛, 필립스 등이 '톱 10'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삼성전자만큼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브랜드는 없다"면서 "휴대전화부터 태블릿, TV, 백색 가전까지 끊임없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이 거대기업이 1위에 오른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삼성과는 달리 애플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다소 뒤쳐져 있다"면서 "엄청난 글로벌 입지로 5위 내에 들었지만 아시아의 거대 내구재 업체인 파나소닉과 LG전자에는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캠페인 아시아퍼시픽이 최근 아시아 14개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브랜드 평가에서도 각각 1위와 6위에 오른 바 있다.

[연합뉴스]

###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내역**

1. 현지 법인설립 (PMA 외국투자법인 및 현지회사)
2. 투자청 업무 (IUT, 고정사업허가 / 주주 및 주식변경, 자본금 증자 및 감자, 업종변경, 주사이전 등)
3. 이타스비자(구 키타스)
4. 은퇴비자(란시아 비자)
5. Property (부동산)

카카오톡 ID: kitas 이메일: ptgcc@hanmail.net  
Tel : 021-5577-6454, 021-5524-236  
위치 : 땅그랑 리브 까라와치 루꼬 피낭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 18 (명가식당앞 상가)

## 바구스 투어

인도네시아 비자대행

BAGUS/ 조은여행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한 주말 비자여행!!!  
이제 바구스투어에서 시행합니다.

싱가포르 비자 여행

- 공항 픽업 서비스
- 리버보트
- 점심
- 공항 센딩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비자여행  
일요일도 비자 가능합니다

평일 12시 전 여권 수령가능  
2~3시 인니 귀인 가능

손님이 원하실 경우  
호스텔 무료 1박 서비스

Office : (+65) 6224 4330  
HP : (+65) 9060 2449, (+65) 9821 3672  
카톡 ID : 소장 김경수 bagusvisatour  
Address : 49A South Bridge Road, Singapore 058681  
E-Mail : bagustour2015@gmail.com

# 시중은행, 글로벌 영토 확대...인니서 '격돌'

시중은행들이 포화 상태인 국내를 벗어나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글로벌 진출을 선정하고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억 6,000만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지만 인구의 절반 가량이 1억명 가량이 은행 정기에 예금 계좌가 없어 잠재 성장성이 높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동남아 영업기반을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확장하고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 소매금융 전문은행인 부코핀 은행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2008년 인도네시아 BII은행 지분 매각 이후 10년만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재진출했다.

부코핀 은행은 인도네시아 내 자산 기준 14위의 중형은행으로 총 322개의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고객 및 SME(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 고객 위주의 리테일 사업을 영위하며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KB국민은행은 주택금융을 포함한 소매금융, 디지털뱅킹 및 리스크관리 부문 등의 역량이전을 통해 부코핀 은행의 가치 증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2016년 인도네시아 현지은행을 인수 합병해 출범했

## 정부 신남방정책 발맞춰 동남아 영업기반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확장 세계 4위 인구대국에 1억명 가량이 은행계좌 없어 잠재 성장성 높아



다. 현재 총 60개의 점포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현지 직원을 통한 영업으로 현지화 영업에 성공해 거래고객의 93% 이상이 현지인이며 자산규모 또한 인도네시아 전체 은행 중 최하위권이였으나 현재 중위권으로 진입했다.

KEB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은 최근 현지 금융전문지 '인베스터'로부터 최우수 은행 1위에 선정되는 등 현지 영업 중심의 지속적인 성장 시현을 인정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4년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현지법인 통합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현지화 전략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현지인 손님 비중이 전체 손님 수의 90%에 달할 정

도로 현지 영업 중심의 지속적인 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체인식, 인공지능 등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 도입 및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뱅킹 부문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현지 30위권인 소다라은행을 인수한 우리은행도 매년 지점 수를 늘려 현재 154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현지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을 맺어 공무원 및 군경 연금공단 연

금 지급은행을 맡고 있다. 농협은행도 올해 하반기 인도네시아 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현지 정책을 비롯한 각종 사업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은행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특히 2015년 한-인도네시아 금융당국 MOU 체결 이후 양국의 금융 협력 범위가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됐다.

은행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며 "특히 인도네시아 시장은 앞으로 금융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은행들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고 말했다.

### 신한 인도네시아은행, 2021년 현지서 상장 추진

#### 영업 1년 반만에 자산 8,000억원 달성 인니 투자확대 위해 비은행 금융사 M&A 추진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2021년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모회사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 오는 2021년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상장할 계획이다.

IPO 추진은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이 지난해 영업을 개시할 때부터 계획한 중장기 전략 중 하나다.

신한은행은 또 인도네시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사 인수·합병(M&A)도 추진한다. M&A를 추진하면

현지 은행의 자본금도 3,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신한은행이 2015년 11월 센트럴내셔널은행(CNB)과뱅크메트로 익스프레스(BME)를 인수하며 탄생했다.

현재 6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현지 기업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발전소, LRT(차세대 노면전차) 등 다양한 정부 주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영업 시작 1년 반 만에 자산 규모를 8075억원 규모로 키웠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28% 늘어난 50억원에 달한다.

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신한인도네시아은행과 하나은행의 현지법인 통합 이후 현지화 전략으로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고 있다.

2014년 인도네시아 소다라은행(Saudara Bank) 지분을 인수한 우리은행은 현재 약 15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아그리스은행(Bank Agris)과 미트라니아가 은행(Bank Mitra-niaga) 지분을 각각 매입했다.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KB국민은행도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지분을 인수했다.

###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서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 현지 진출 국내기업 소속 인도네시아 근로자 대상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이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소매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이른바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

대상은 현지에서 진출한 국내기업 소속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다.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

아 정부가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100만 가구 사업'의 일환이다.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건설 사업이다.

하나은행은 모기지론 출시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소매금융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미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업체 파라마운트 랜드와

주택 사업 금융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금융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은 지난 3월 기준 60여 개에 이르는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순이익 634억원을 달성했다.



최고의 건강 선물

## 빨간야파즙

Rp. 600,000 60팩 / Box

# 한국건강원

빨간야파즙, 양배추즙, 강황즙, 우영한약즙, 우영즙, 늙은호박즙, 여주즙, 가지즙, 미나리즙, 시르식즙, 심전대보탕, 개소주 액기스, 장어 액기스, 코브라 액기스, 킹코브라 액기스, 배도라지즙, 배즙, 키위즙, 포도즙, 사과즙, 비아그라, 씨알리스, 웅담, 저담, 사담

**이슬브 증류액**

개소주 증류액, 흑염소 증류액, 코브라 증류액, 자라 증류액, 잉어 증류액, 장어 증류액, 붕어 증류액, 마늘 증류액, 오가피 증류액

**인도네시아 전 지역 배달 드립니다**

HP. 0811-92-3200  
Tel. 021-2931 3027



신약의 초기 교회는 ‘헌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연보’란 말을 썼습니다(고후8:20). 한국교회 역시 6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모금을 연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연보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헌금이란 용어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헌금과 연보의 차이**

어떤 분들은 “그게 그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 두 용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신약 성경의 연보(eulogia)는 ‘모금’이라는 뜻으로 ‘사람들 사이의 나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헌금(doron, gorbán)이란 ‘예물’의 뜻으로 ‘하나님께 바침’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연보는 ‘사람과 나누는 돈’이고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더 신도들에게 약발이 좋을까요. 이 대목에서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어떤 교회들이 굳이 연보를 헌금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돈을 더 걷기 위함입니다.

신도들에게 이웃과의 ‘나눔’을 강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침’을 강조하는 게 훨씬 큰 수거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인들은 자신의 형제들에게조차 별로 나누어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는 꼭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헌금에 열심인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는 심각한 기만입니다.

본래 과거 ‘개혁한글’ 번역본의 구약에는 ‘헌금’이란 용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누가복음 21장에 단 2번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부자들이 연보권에 넣은 돈이므로 실제로는 연보인데 이를 굳이 ‘헌금’이라고 역지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한글’ 성경엔 실제로 ‘헌금’이란 용어나 제도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반면에 ‘연보’라는 용어는 구약에 1번 신약에 12번 도합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다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개정’ 번역판으로 오면서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번역자들은 의도적으로 연보를 8곳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는 거꾸로 연보로 번역되어 있던 곳은 헌금으로 바꾸어 오히려 헌금이란 용어는 8곳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번역판은 개선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 된 셈입니다.

**성전 연보권의 정신**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여호와와 전에 헌금(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의 율법책을 발견하고(역대하 34:14)”입니다. 성전의 연보권에 보관된 돈은 분명히 연

적으로 한국교회의 일부 교권 주의자들이 성경 원어마저 그 의미를 변개하며 종교적인 장난을 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본래 유대 의 성전에는 오직 연보권만이

보 외에는 그 어떤 돈도 성도 들에게 요구한 기록은 없습니다(“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롬 15:26). 사도들의 초기 교회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연보 역시 주님을 섬기는 귀한 행위라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 25:35-36).

하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성경 원문까지 훼손하면서 ‘나눔’보다 ‘바침’을 은근히 강조하고 돈 걷기에 몰두하는 행위는 비성경적입니다. 이는 연보의 근본 목적인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에서 이탈하여 그걸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듭니다.

본래 성경의 연보는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단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현대 요즘 헌금은 무려 85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가야 마땅할 교회 돈의 95% 이상이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먹고, 마시고, 건물 짓고, 비품 늘리고, 그리고 직분자 인건비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헌금’이란 용어와 제도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모금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헌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바치는 제사나 예배란 결단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당뉴스

**“헌금 말고 연보하자” 성경에 ‘돈 바치는 예배’란 없다**



보인데 이를 구태여 ‘헌금’으로 바꾸어 번역했습니다. 이게 번역자가 무식해서 실수한 건지 아니면 고의적인 건지는 성도들의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는 입구부터 시작하여 13개의 연보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제사할 때 바치는 제물과는 무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걷는 돈이었습니다. 즉 이웃과 나누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바친다’는 말보다는 ‘연보를 낸다’는 말이 더 바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래 제대로 잘 번역되었던 ‘연보’라는 용어를 개신교가 굳이 ‘헌금’으로 바꾼 이유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

있었고 제사 중엔 제물 외에 그 어떤 헌금 행위도 없었던 사실입니다. 성전 제사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하므로 신약의 예배에서는 별도의 제물이나 예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 10:10).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 예배에서 “하나님께 돈을 바치라”는 가르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인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웃을 구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연

보 외에는 그 어떤 돈도 성도 들에게 요구한 기록은 없습니다.

**‘헌금’이란 용어는 ‘용도 변경’의 꼼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돈을 직접 주시지도 않고 직접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난한 빈민,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게 너희들이 직접 연보를 걷어서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수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전 연보권의 목적이며 동시에 신약 교회의 연보 정신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초대교회에서 공식적인 모금이란 오로지 ‘연보’뿐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인도네시아는 디자인 연구소로서 그간 코파의 힘,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강문갑의 역사속으로

# [뉴욕타임즈(1910. 8. 18)-일본이 한국을 병합한다.(4)]



▲ 위:러시아 의관의 고종과 순종, 아래:고종의 을사늑약 무효선언서

1905년 9월5일,전쟁에서 패한 러시아는 일본과의 비밀거래를 숨겼던 루스벨트의 중재로 포츠머스강화조약에 서명하였다. 노벨위원회는 루스벨트가 일본이 아시아대륙으로 진출하도록 정식으로 허가해 준 사실을 모른채 강화조약 주선의 공으로 19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다.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한 루스벨트의 말처럼 약소국을 강대국이 삼켜버리는 것이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평화관이었다.

1905년 11월8일, 루스벨트는 다카하라 공사의 방문자리에서 일본이 주한미군 공사관의 철수를 원하는지 물었고,11월17일,일본은 “대한제국이 부강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라는단서조항을 달아 제2차한일협약(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자, 11월24일 루스벨트는공사관을 폐쇄하라는 지시를내렸고,11월28일 서울 주재 미국 공사관을 폐쇄하였다. 미국 정부 방침에 따라 황급히 대한제국을 떠나

야 했던 미국 공사관의 부영사였던 윌러드 스트레이트는 미국의 공사관 철수가 “침몰하는 배에서 우르르 도망치는 쥐떼 같은” 모습이었다고 기록했다.

1907년 6월부터 10월까지 열렸던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회의장 밖으로 밀려난 밀사들은 6월27일 각국 대표들에게 탄원서를 보내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알렸다. 7월8일 이위종은 각국 대표단 및 사회운동가,기자들이 모이는국제서클(Circle International)에서 “일본이… 왕궁을 포위한 가운데 1905년 11월15일 이토는 고종황제를 알현하고 을사조약을 강요했다… 우의와 형제애를 말하면서 주머니를 훔치는 위선자인 일본은 백주의 강도보다도 더 비열하고 야수적인 것이다.”란 내용의 ‘조선의 호소(A Plea for Korea)’를 발표했다.

고종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본의 주권침해를 고발하려 했지만 실패로 끝났고, 밀사파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일본의 위협에 밀려 1907년 7월20일고종과 황태자가 불참한 가운데 황태자 대리식이 거행되었고, 고종의 44년(재위 1863~1907) 치세가 강제로 막을 내렸다.

7월24일,정미7조약(제3차한일협약,한일신협약)체결시 작성한 ‘협약 실행에 관한 각서’에서 최고법원인 대심원 원장 등은 일본인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며, 군대 해산을 명문화하여 대한제국의 군대 강

제해산을 단행하였다.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된 항전은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으로 진압되었고, 군대해산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 할 마지막 수단을 상실했다.

500년 제국은 그렇게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1908년 11월30일,미국은일본과 ‘루트-다카하라 협정’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을 일본의 ‘영토적 속국(territorial possessions)’으로 인정하였다.

1909년 7월6일 “적당한 시기에한국의 병합을 단행한다”는 “한국병합에 관한건”을 내각회의에서최종 결정한 일본은 1910년 5월, 한국병합 방침을 영국에 알렸고, 1910년 7월4일 한국병합에 대한 러시아의 승인을 전제로 만주를 분할하는 제2차 러일협약을 체결했으며, 8월 21일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프랑스, 독일등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 및 공사에게 한일 병합을 해당국 정부에 알리도록 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언론들은 한일강제병합 조약 체결 전부터 일제의 한국병합 사실을 타전하고 있었다.

뉴욕타임즈는 1910.8.18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다(JAPAN IS ABOUT TO ANNEX KOREA)’ 제목의 기사에서 “오래전부터 예견되던 일본의 한국병합이 곧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독립은 을사늑약때 실질적으로 종식됐다”고 보도했다.

8월22일 기사에서 “나라로서의 한국은 이번 주에 사라진다(KOREA AS A NATION TO END THIS WEEK)”라는 제목아래 “일주일 내에 은둔의 왕국 대한제국은 역사적 용어가 되고,1200만 인구는 일본에 더해지며 잉글랜드만 한 크기의 영토는 일본제국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식민지 백성이 될 조선인들은 망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만 나돌고 있었다.



▲창덕궁 흥복헌 : 대한제국 마지막 어전회의 열렸던 곳

## 한인니 문화연구원과 서울대 신흥지역 연구사업단의 MOU체결



지난 8월 9일 인도네시아 한인니문화연구원(문화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신흥지역연구사업단(신흥지역연구사업단)은 상호 학술적, 문화적, 그리고 인적 교류를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문화연구원은 1999년 사공경 원장이 주도했던 인도네시아 문화탐방활동에서 비롯되어 2011년 8월 한인니문화연구원으로 정식 개원하였다. 현재 문화연구원은 문화탐방, 열린강좌, 인터넷문학상, 바틱 전시회, 예술 공연 등의 다

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쌍방향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은 한국연구재단의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단으로서 한국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국가에 진출한 한인 기업과 로컬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추후 이러한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의 프로젝트는 한국기업이 동남아에서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

라 로컬주민을 이해하고 로컬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한인기업의 성공적인 현지화 및 기업과 로컬사회의 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투자국가에 대한 깊은 문화적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문화연구에 대한 전문가 풀과 한인사회 및 현지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한인니문화연구원과 동남아 지역 연구가로 구성된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의 MOU는 서로의 활동과 연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MOU를 체결하는 행사에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의 양영

연 회장, 최인실 사무국장, 한인니문화연구원의 사공경 원장, 채인숙 연구원, 서울대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의 이지혁 선임 연구원, 그리고 문화연구원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지혁박사와 엄은희 박사는 문화연구원의 객원연구원으로 선임되었다.

**ELITE**  
SINAR ABADI

가성비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공장 유니폼  
단체복  
골프복  
기타**

JWjindohwang@gmail.com  
0812 1324 1251  
021 5518 037



# 이슬람사원 소음 항의가 신성모독?...印尼 법원 황당판결



이슬람 사원의 확성기 소리가 크다고 항의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메단 지방법원은 중국계 불교도 메일리아나(44·여)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북(北) 수마트라 주 판중발라이 시 주민인 메일리아나는 2016년 자택 인근 이슬람 사원의 확성기 소리가 크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사원은 확성기를 이용해 하루 다섯 차례 '아잔' (예배시간을 알리는 소리)을 울린다. 이 확성기는 설교를 들려주

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메일리아나는 소리가 너무 커 귀가 아프다면서 음량을 낮출 것을 거듭 요구해 사원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격분한 무슬림계 주민들은 2016년 7월 29일 폭동을 일으켜 판중발라이 일대의 불교사원 14곳을 파괴하고 약탈했다. 폭동 주동자들은 전원 체포돼 각각 1~4개월의 징역에 처했지만, 메일리아나도 타인의 종교활동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메일리아나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는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 터무니없는 판

결"이라고 비판했다. 2억6천만 인구의 87%가 이슬람을 믿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국인 인도네시아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상당한

실례로 간주된다. 신성모독법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소수 종교를 탄압하거나 정적 등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 미디어 코리아 광고를 제안합니다.

미디어 코리아는 귀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 1, 개요**  
특 징  
미디어 코리아는 탄탄한 디자인파워를 바탕으로 한 타블로이드판 정보지로서 귀사의 홍보를 지면을 통해 대행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하는 매체로 다가갈 것입니다
-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 HANSHIN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괄대리점

##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함께 한 18년!!!

## 중부자와 서비스지점 오픈 !!!



**NH 시리즈(피스톤 콤프레셔)**  
국내 최대 판매, 유일 수출 피스톤 콤프레셔 (1~20마력)



**RCH 시리즈 (소형스크류 콤프레셔)**  
설치면적 최소화, 경량화, 정속화 실현 (5~20 마력)



**AD-HT 시리즈 (일체형 드라이버)**  
에프터 쿨러, 에어필터, 에어 드라이어 일체형으로 설치면적 최소화, 입구온도 80°C 설계로 더운 동남아 지역에 최적함.



**GRH 시리즈 (오일 인젝션 콤프레셔)**  
스크류 : 독일(GHH-RAND사) 세퍼레이터 : 일본



**AL, CDH 시리즈 (오일프리 콤프레셔)**  
완벽한 오일 차단, 최장의 운전시간 보장, 최고의 오일프리 스크류 사용  
AL 시리즈 : Kobelco(일본) CDH 시리즈 : GHH-RAND(독일)



매월 정기점검 서비스  
국내 구입가 보다 저렴한 가격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독일 GHH RAND 스크류사용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 가장 빨리 침수되는 자카르타, 2050년이면 물에 잠겨

## 지구온난화의 대표적 피해 도시 습지에다가 지하수 추출로 빠르게 침수 일부 지역은 매해 25cm씩 가라앉아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빨리 사라질 대표적 도시는 어디인가? 인구 1천만의 대도시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지목되고 있다.

자카르타는 오는 2050년이면 대부분이 침수되어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비시>가 13일 연구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카르타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물에 잠길 도시의 하나로 추정되는 것은 지형적, 환경적 요인 때문에 지구온난화 효과가 가장 현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카르타는 13개의 강의 하구가 관통하는 습지에 위치해, 자바해에 면해 있다. 홍수가 잦은 지형이다.

더구나, 인구 1천만의 인구와 도시 시설들이 해안에 접해 있어, 홍수와 해수면 상승은 자카르타를 지구온난화로 인한 최대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자카르타 토지의 침하를 연구해온 반둥기술연구소의 헤리 안드레아스 연구원은 “자카르타가 침수될 가능성은 웃어넘길 사안이 아니다”며 “우리 모델에 따르면, 2050년이면 북자카르타의 85%는 침수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의 침수는 이미 그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북자카르타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2.5m가 침하했다. 일부 지역은 매



해 25cm가 계속 가라앉고 있다. 이는 연안 대도시의 전 세계적 평균 침수보다도 두 배나 높다.

자카르타는 매해 평균 1~15cm가 가라앉고 있고, 도시의 거의 절반이 현재 해수면보다도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이런 변화는 북자카르타에서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

무아라 바루 지구에서 한때 어업회사였던 건물은 현재 2층의 베란다 일부만이 사용 가능하다. 1층은 완전히 잠겨있다. 지반 자체가 침수되고 있어, 이 건물을 버리는 것 외에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북자카르타는 역사가 깊은 항구도시였고, 현재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번잡한 부두인 판중 뿌리옥이 있다. 현재 180만명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서 바다 풍경이 보이는 고급빌라에 사는 포르투나 소피아는 자신의 집이 망가지고 있는 것은 느낀다. 6개월마다 벽과 기둥에 금이 가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균열은 지반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것이어서, 근본 대책이 무망하다.

4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그는 이미 몇차례나 홍수를 겪었다. 바닷물이 밀려와 자신의 집 수영장을 채우고, 모든 가구를 2층으로 옮겨야 했다. 어부 마하르디는 “매해 밀물이 5cm씩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자카르타

의 바닷가에는 고급 빌라 건축 붐이 더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주택개발협회 자문위원장인 에디 가네뽀는 정부에 추가적인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다른 지역도 속도는 느리나, 가라앉고 있다. 서부 자카르타는 매해 15cm, 동부 자카르타는 10cm, 중앙 자카르타는 2cm, 남부 자카르타는 1cm씩 가라앉고 있다.

자카르타의 침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다른 환경적 요인도 가세하기 때문이다. 거주민들이 식수 등 일용수를 지하에서 과도하게 추출함으로써, 지반 침하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강물을 정화해 공급하는 수도물은 대부분 지역에 공급되지 않거나, 식용수 등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자카르타 시민 다수는 지하수 추출에 기댈 수밖에 없다.

수도물을 통한 용수 공급은 자카르타 물 수요의 40%만 충족하고 있다.

규제 완화는 지하수 추출을 가속화한다. 대형 소광물이

들어서면, 주변 주민들이 지하수 추출 권리를 개발업자에게 파는 식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자카르타 만을 따라 인공섬과 32km의 바다 방벽을 쌓아서 자카르타의 침수를 막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비영리단체들은 지난 2017년 바다방벽과 인공섬이 자카르타의 침하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네덜란드의 수리공학연구소인 델타레스의 얀 야그 브린크만 수리공학자는 이런 대책은 자카르타의 침수를 단지 20~30년 늦추는 단기책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지하수 추출을 금지하거나 규제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자카르타 시민들의 식용수로 사용될 강들이 심각하게 오염됐기 때문이다. 자카르타 주변의 강이나 호수들의 물을 식용수로 사용할 정도로 정화하려면,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해도, 자카르타의 침수가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구온난화에 따른 침수 속도가 전 세계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일뿐이다.

## 호텔 운영회사 따우지아, 3년간 호텔 1천개 신설 계획

인도네시아 호텔 운영회사 따우지아(Tauzia)는 호텔 신설사업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향후 2~3년간 국내에서 호텔 1,000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10월 고급호텔 개업을 시작으로 해외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따우지아의 마크 스테인마이어 사장은 “엘로우 호텔 4개소, 해

리스 베르푸 2개소, 팝 호텔 1개소를 신설해 총 1,000여개의 객실을 투입한다. 투자액은 각각 5만 5,000달러, 8만 달러, 4만 5,000달러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따우지아는 10월 말레이시아 플라카주에 고급 호텔 브랜드 ‘프리퍼런스(객실수 20실)’를 개설했다. 따우지아는 올해 이미 국내 11개소에서 호텔을 오픈해 총 호텔 수가 122개 늘었다. 마크



스테인마이어 사장은 “호텔 운영사업은 정부의 규제 강화 및 요금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20%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 IBK기업은행, 인니 현지법인 12월 출범한다

IBK기업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인가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올해 12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과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종 인가에 앞서 현지 당국의 요청에 따라 기업은행의 건전성과 과거 제재 사항 등을 토대로 인가 적격성 여부를 판단했고 양국 간의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12월 현지 법인이 개소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 인수한 2곳 은행의 인수합병(M&A)이 마무리되면서 최종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현지 당국과의 협의 과정은 거의 끝났고 올해 12월쯤 개소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현지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법인을 세우기 위해 기존에 인수했던 소형은행 2곳의 M&A를 모두 마친 상태다. 지난해 11월 조건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아그리스(Agris) 은행과 올해 4월 추가로 사들인 미뜨라니아가(Mitraniaga) 은행을 합치는 절차를 모두 끝냈다.

국내 금융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선 반드시 2곳 이상의 은행을 인수해야 한다. 현지 규정에 따라 은행 지분 소유 한도가 최대 40%에 불과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두 곳을 합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외 금

## 현지 법인 인가 절차 막바지...12월 개소식 예상 김도진 행장 ‘아시아 금융벨트’ 구축 꿈 이루나



용사들의 현지 진출이 급속도로 늘어나자 진입 장벽을 높이고자 이같은 규정을 내세웠다. 해외 자본에 부실 금융사 매각 시 현지 당국 입장에서선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내 금융사 또한 기존에 현지 금융사들이 구축해 놓은 영업망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영업 구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표 사례로 신한은행은 지난 2015년 뱅크메트로익스프레스(BME)에 이어 2016년 인수한 센트럴내셔널은행(CNB)을 인수한 뒤 그해 12월 통합은행 ‘신한인도네시

아은행(BSI)’을 출범시켰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등에서 약 60개에 달하는 채널망을 확보했고 영업 시작 1년 만에 자산 10조5,000억루피아(한화 약8,022억원)를 달성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도 법인 신청이 많아지면서 신규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 추세”라며 “부실 금융사 인수 시 단계적으로 불안해 보여도 국내 금융사가 들어가 자본을 투입하고 정상화 해버리면 한 번에 영업망이 구축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인수한 아그리스은행의 경우 현지에서만 23개 영업망을 가진 외환거래 라이선스 보유 금융사다. 자카르타

에 위치한 미뜨라니아가 은행도 13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어 법인 출범 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오는 2025년까지 해외 수익 비중을 전체 수익의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이번 법인 설립에 거는 기대가 크다.

‘新 남방정책’에 호응해 일찌감치 글로벌 영토 확장 나선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에만 글로벌 순이익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은행권의 실적에서 글로벌 순이익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상반기 글로벌 순이익은 5,272억원을 넘어섰다. 2015~2017년 간 연 평균으로는 7,658억원의 실적을 내 평균 당기순이익 5조4,000억원 대비 14.2%에 달했다.

## K- Move 및 K- Move센터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정부부처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K- Move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해외 취업 및 현지 정착을 지원하는 글로벌 플랫폼인 K- Move센터를 운영하여 해외일자리 발굴(현지 민간취업알선기관 등을 통한 일자리 발굴 및 해외 취,창업정보 분석 등) 및 해외 취,창업지원(취

업알선 지원, 현지 멘토와의 멘토링 지원, 취,창업박람회 개최 등) 및 사후관리(기취업자 근로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 해소, 재취업지원 등)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외 취업 장려금

- 1) 지원대상
  - A. 만34세이하(1983.1.2 이후 출생)인 자
  - B. 본인, 부모 및 배우자합산소득 8분위 이하 해외 취업성공자
  - C. 취업 전 월드잡플러스 사이트에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한 자
- D. 2017년 8월 28일 이후 해외취업한 자.

D. 2017년 8월 28일 이후 해외취업한 자.

2) 취업인정기준 : 취업비자, 단순 노무직 제외, 연봉 1,500만원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3) 지원내용

- A. 지원금 우대국가최대 800만원(1차300만원,2차200만원, 3차300만원)
- B. 선진국분류국가 최대 200만원(1차200만원, 2차100만원, 3차 100만원)
- \* 세부사항은 월드잡 회원가입 후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https://www.worldjob.or.kr/ovsea/sbsd.do?menuId=1000000041>)

### 4) 지원절차

- 월드잡플러스회원가입 - 취업성공-1차지원금신청(취업기간 1개월이후부터 7개월간)
- 2차지원금신청(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이후부터 2개월간)
- 3차지원금신청(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12개월이후부터 2개월간)
- \* 장려금 신청 및 증빙서류제출 등 제반절차는 월드잡플러스(온라인)를 통해서만 가능한 자세한 내용문의: KOTRA(K- Move센터) 이은정 실장 HP 08111350444/ 카톡아이디: ejleedoowang19 /kotrajakarta2018@gmail.com

## 인니 비즈니스의 脈

20년 세월! 한인동포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과 인허가, 비자대행 업무로 한결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뢰와 성실로 다져온 CITRA CONSULTING은 한인동포의 어려움과 보다 안정된 사업을 위해 함께 해 나갈것입니다

Try your best rather than be the best



### 주요업무

시장조사 / 회사설립 / 수출입 관련 서류 및 보세구역 / 체류관련 / 기타 업무

# 미·중 무역전쟁 5개월, 싸움의 균형이 무너졌다

## 미중 무역전쟁 5개월 성적표

\*주가지수, 환율은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3월22일 이후 8월24일 현재 변동폭



관세 공격	500억 달러 규모 부과,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예고	500억 달러 규모 부과, 600억 달러 규모 추가 예고
주가지수	다우존스 지수 4.5% 상승	상하이 지수 16.8% 급락
2분기 경제성장률	4.1%(4년만에 최고치)	6.7%(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
환율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8.4% 급락	

그래픽: 유정수 디자인가자

MT 더니루데이



### 美中 관세 대결

미국	중국	
철강 및 알루미늄 철강 25% 알루미늄 10%	6월 1일 신선과일, 강관, 돈육 등	30억달러 규모, 15~25%
반도체, 통신장비 등 340억달러 규모 25% 관세	7월 6일 대두 등 농산물, 자동차 등	340억달러 규모 25% 맞불
전자제품, 오토바이 등 160억달러 규모 25% 관세	8월 23일 화학제품, 의료장비 등	160억달러 규모 25% 관세
항공·우주 첨단 제품, 농축산물, 의류 등 2000억달러 규모 25% 관세	미정 LNG, 자동차타이어, 농산물 등	600억달러 규모 5~25% 관세
소비재 등 6000여개 제품	5200여개 제품	
대중 수출 1299억달러	2017년 대미 수출	5055억달러

\*자료: 미 USTR, 중국 상무부

그래픽: 유정수 디자인가자

G2 맞아? 무역전쟁 5개월, 확연히 드러난 미·중 격차  
[G2 무역전쟁 5개월 성적표]공격 강도·경제 지표 미가 압도... 트럼프 “中, 짧은 시일 내 미국 앞지르지 못할 것” 공세 지속

## 개최국 인도네시아 “모든 메달리스트 공무원, 군경으로 특채”



우리 선수들에겐 병역 면제가 당근이 되지만 개최국 인도네시아 선수들에겐 공식 특채가 당근이 되는 것 같다.

모하메드 샤프루딘 인도네시아 선수단 단장이 지난 20일 자카르타 그마요란의 지(JI)엑스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금메달 뿐만 아니라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도 건강하다는 점만 확인되면 공무원, 군경으로 채용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가 전했다. 경찰부청장인 샤프루딘은 우수 여자 태극권에서 린드스웰에게도 “이미 그녀는 공무원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회식 때 대역을 쓴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주경기장에 도착하는 것처럼 연출한 조꼬 위도도 대통령도 연일 금메달 사냥을 응원하고 있다. 위도도 대통령은 직접 우수 경기가 열린 JI엑스포를 찾아 응원하며 꺾을 향해 엄지를 치켜 보이기도 했다.

그는 조국에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안긴 꺾을 ‘아시아의 여왕’이라고 격려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5,400여건의 ‘좋아요’와 3,600회 넘는 리트윗을 기록했다.

심지어 잇단 지진 피해로 시름을 앓고 있는 롬복섬 주민들도 꺾의 금메달을 축하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한 누리꾼은 “축하해 린드스웰, 우리 롬복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대회 경기를 열심히 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이런 성취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런 격려 덕분인지 인도네시아는 지난 19일 태권도 품새에서 데피아 로스마니 아르가 대회 첫 금메달을 따낸 뒤 20일까지 금 4, 은 2, 동메달 2개로 한국(금 5, 은 9, 동메달 10개)에 이어 메달 순위 4위를 달리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대회 금메달리스트 1~3호가 모두 여성들이란 점이다. 네 번째 금메달을 안긴 산악자전거(MTB) 다운힐의 꺾이를 묵합이 첫 번째 남자 금메달리스트였다.



JOUN DOOR



Flooring, Skirting



DONGSEO

**PT. DONG SEO Furniture**  
Doors and Furniture Specialis

**Our Product :**

- Doors & Frame
- Furniture Oustom
- Interior Molding
- Flooring
- Skirting
- Paint finish
- + Wood Veneer
- + Duco
- Laminate Finish
- + HPL
- + PVC
- Alumunium door & Frame

Kawasan Industri Manis II, Jl.Palm Manis IV No.61  
Gandasari, Jatiuwung, Tangerang Banten - Indonesia

Marketing contact :  
☎ +62 021 591 5637  
✉ dongseowood@yahoo.co.id





